

아이오닉9, 최장 532km ... 대형 전기 SUV 기준이 되다

현대차, 사전 계약... 초고속 충전 시스템 탑재해 24분만에 80% 충전
넓은 실내 공간·공기 저항 최소화... 6·7인승 6715만원부터 구매 가능

현대차가 3일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9는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로, 동급 차량 중 가장 긴 휠베이스를 통해 광활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오닉9는 110.3킬로와트시(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후륜구동 기준 최장 532km까지 달린다.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기 소비효율(전비)은 4.3km/kWh다.

사륜구동의 경우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 4.1km/kWh에 1회 충전 시 503km를 주행한다.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거리 501km다.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1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을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공기 흐름을 최적화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에어로스테틱(Aerosthetic)' 실루



엷을 연출했으며 세계 최초로 전면 범퍼 하단에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 (Active Air Flap)을 탑재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다.

보트의 날렵한 모습에서 착안한 디자인은 대형 SUV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0.259)를 달성했다.

아이오닉 9는 또 전면부 및 램프 디자인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했고, 차량 측면은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해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현대차 아이오닉 9 내·외관.

제공한다.

아이오닉 9는 전장 5060mm, 축간거리 313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의 크기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

아이오닉9는 6인승, 7인승마다 세 가지 트림(익스클루시브·프레스티지·캘리그래피)이 있다.

아이오닉 9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기본으로 적용됐다.

또한 현대차는 아이오닉 9에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350kW급 충전기로 24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보조금 미적용 시 최저 6715만원에서 최고 7941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인승 기본 트림 기준 6000만원 초중반대부터 아이오닉 9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관계자는 "전동화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를 통해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전동화 경험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 수준의 주행 가능거리와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갖추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아이오닉 9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험난한 지형에도 거뜰한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 공개

제네시스, 다보스포럼서 전시

제네시스가 험지에서 정찰·구조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콘셉트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사진〉를 전시했다고 3일 밝혔다.

GV60 다목적 험로 주행 콘셉트는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정찰·구조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로, 탑승자의 안전과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이번 콘셉트는 전기차인 GV60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소음이 적고, 고성능 전기모터를 활용해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다고 제네시스는 전했다.

이와 함께 V2L(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에 장착된 구조 장비에도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눈길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무한궤도형 바퀴를 장착해 다양한 험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탑승자의 고정을 위한 스포츠 시트와 긴급 통신 시스템, 의료용품 등이 내장돼 극한 상황에서 정찰과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장비용 루프랙과 모듈러 방식의 해지랙을 탑재해 최대 적재 공간도 확보했다.

휠하우스에는 탄소 섬유로 제작된 대형 펜더가 장착돼 충격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한궤도형 바퀴를 비롯한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3년, 2024년 다보스 현장에서 각각 '제네시스 X 콘셉트'와 'X 스노우 스피디움 콘셉트'를 전시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E클래스, 유럽서 '가장 안전한 차' 선정



'유로 NCAP' 신차 안전도 평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3일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E클래스의 최신 11세대 모델이 유럽의 차량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2024년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로 NCAP은 유럽 각국의 교통부와 보험협회 등이 1997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 등의 충돌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에서 E클래스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기술 등 네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평가된

53대(신차 41대 포함) 차량 중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다.

E클래스 11세대 모델 중 엔트리 모델인 E200은 지난해 12월 한국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E클래스 11세대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등급 평가 결과에서 이전 모델보다 1단계 높아진 16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충돌 사고 시 손상 정도 및 수리 용이성,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책정하는 제도다. 등급이 높아진 데 따라 E클래스의 자차 보험료는 더 내려가게 됐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